

세계적 푸르른 양진디와 함께...

HAMPY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천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9분 데뷔 이동국 골대 불운

환상의 왼발 발리슛 '불발'

후반 40분 투입...평균 7점

프리미어리그 4호 이동국(28·미들즈브러·사진)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를 밟았다. 이동국은 후반 막판 투입된 데뷔전에서 두 개의 슈팅을 때려 한 차례 골 포스트를 맞았다. 이동국은 2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미들즈브러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레딩FC와 홈 경기에서 후반 40분 아예그베니 야쿠부 대신 교체 투입돼 인저리타입까지 9분 간 출전했다. 지난 달 31일 미들즈브러 입단식 이후 25일만의 데뷔전. 미들즈브러는 마크 비두카와 야쿠부의 연속골로 레딩을 2-1로 제압했다. 가람비가 흠날리는 가운데 투입돼 첫 터치를 공격 진영에서 헤딩으로 한 이동국은 레딩이 막판 거센 반격을 펼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역습에 가담했다. 비두카와 투톱을 이룬 이동국은 후반 인저리타임 3분 스튜어트 다우닝이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자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발리슛을 때렸다. 특기인 논스톱슛은 그라운드를 한 번 튀긴 뒤 오른쪽 골 포스트를 맞고 아유했다.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트릴만한 순간이었다. 이동국은 뒷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어 종료 직전에는 아크 뒤로 치고 들어가다 오른발 중거리



슛을 날렸지만 뜨고 말았다. 이동국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프리미어리그 첫 경험에서 골대를 맞추며 자신감을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미들즈브러 감독은 지난 23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군과 경기에 45분을 뛰게 한 이동국을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짧게 출전시켰다. 기대했던 이동국과 설기현(28·레딩)의 맞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설기현은 이날 출전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정규리그 네 경기 연속 결장했다. 잉글랜드 축구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이날 이동국에게 평균 7점을 매겼다. 스카이스포츠는 이동국이 후반 인저리타임 발리슛으로 골포스트를 맞춘 데 대해 '꿈의 데뷔전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곁들였다. 이동국보다 높은 평점은 1골과 1도움을 올린 마크 비두카(8점)뿐이었다. 한편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은 또 벤치를 지켰다. 박지성은 24일 밤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풀럼과 원정 경기에서 교체 명단(5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브라이언 맥브라이드에게 선제골을 내준 맨유는 라이언 기스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연속골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동국은 기대에 부응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 인터뷰

“짧은 시간이지만 꼭 기회를 주고 싶었다. 기대에 잘 부응했다.” “라이언건” 이동국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데뷔에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만족스런 평가를 내렸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25일(한국시간) 레딩과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이끈 뒤 가진 인터뷰에서 “후반전 2-0으로 앞서가 이동국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기회를 주고 싶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플레이를 보고 싶어하고 그가 경기장에서 잘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우리도 그가 잘하기를 기대했는데 잘 부응해 준 것 같다”고 밝혔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계획상으로는 이동국에게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마크 비두카와 아예그베니 야쿠부가 플레이를 너무 잘했다”고 뒤늦게 이동국을 출전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프리미어리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동국에게 갑자기 많은 것을 소개해 주기보다는 조금씩 적응시키고 싶다. 팬들의 소망도 그가 경기장에서 잘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동국에 대한 애정으로 감추지 않았다.

“K-리그 계절이 돌아왔다”

한국 프로축구 K-리그가 3월 3일 오후 3시 성남 탄탄 종합운동장에서 지난해 정규리그 챔피언 성남 일화화 FA컵 우승팀 전남 드래곤즈와의 K-리그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9개월 동안 총 254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에 들어간다. 광주 상무는 내달 4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개막전을 갖는다. 올해로 출범 25년째를 맞는 프로축구는 지난해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우승팀 고양 국민은행의 승격 거부로 지난해처럼 14개 팀으로 꾸려졌다.

내달 3일 개막...총 254경기 대장정 돌입

▲주말은 리그, 주중엔 컵 대회 올 시즌 가장 큰 변화는 일단 K-리그 및 컵 대회의 방식과 일정을 들 수 있다. 우선 K-리그는 2004년부터 3시즌 동안 시행해온 전·후기리그 방식에서 단일리그로 환원됐다. 전·후기 우승팀과 통합순위 상위 두 팀 등 4개 팀이 진출하는 플레이오프는 6강 플레이오프제로 바뀌었다. 3월3일 개막전이 열리면 10월10일까지 2라운드로 팀당 26경기씩 총 182경기의 정규리그를 치른다. 3월14일부터 킥오프컵 대회도 1라

운드 풀리그 방식에서 조별리그 후 6강 플레이오프 방식으로 변경돼 주중에 열린다. 5월23일까지 진행될 조별리그는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팀인 성남과 전남을 뺀 나머지 12개 팀을 6개씩 2개 조로 나누어 운영된다. ▲특급 스타들의 복귀와 전력 판도를 시즌 K-리그가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프로축구의 호황기를 이끌었던 '테리우스' 안정환(수원)과 '양광 테리' 고종수(대전) 등 대형 스타들의 복귀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기에 일본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던 국가대표 수비수 김진규(전남)와 최성용(울산), 러시아 무대에서 뛰 김동현(성남)과 현영민(울산) 등도 다시 K-리그의 품으로 돌아왔다. 올 시즌에는 지난해 정상이 으며 7번째 K-리그 타이틀을 거머쥔 성남이 변함없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화 군단' 수원 삼성과 알짜 선수들의 보강으로 전력의 짜임새를 더한 울산 현대 등이 성남의 독주를 견제할 후보로 꼽힌다. 귀네슈 감독을 영입한 서울도 새로운 팀 컬러로 정상에 도전한다. 동계 전훈 기간 소리소문 없이 전력을 강화한 전남과 브라질 출신 세르지오 파리아스 감독 부임 이후 꾸준한 성적을 거뒀던 포항, 아시아 챔피언 전복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특히 올해에는 단기적인 플레이오프에 여섯 팀이나 오르게 돼 우승팀을 예측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지영 아쉬운 2위

13언더...1타차로 우승 놓쳐

LPGA 필즈오픈 최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년차 이지영(22·하이마트)이 우승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했다. 이지영은 2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의 코올리나골프장(파72·6천51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필즈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와 6타를 치는 선전을 펼쳤지만 3라운드 합계 13언더와 203타로 스테이시 프라마나수드(미국)에 1타 뒤진 준우승에 머물렀다. 2라운드에서 6언더와 66타를 뽐내 프라마나수드에 1타차 3위로 올라섰던 이지영은 최종 라운드에서 매치플레이나 다름없는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였지만 1타차를 극복하지 못해 부름을 삼켰다. 그러나 이지영은 시즌 두번째 경기인 이번 대회에서 사흘 내내 60대 타수를 기록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해

올해 맹활약을 예고했다. 특히 LPGA 투어 선수 가운데 최장타자로 이름을 올린 이지영은 54홀 동안 15개의 버디를 수확하고 보기는 단 2개로 막아내는 등 경기 운영과 쇼트 게임 능력이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 '코리안 군단'에 간판 선수로 성장했음을 알렸다. 1. 2라운드에서 프라마나수드와 함께 공동 선두를 달렸던 재미교포 신인 안젤라 박(19)은 긴장한 탓인지 버디 기회를 여러차례 놓치면서 1타밖에 줄이지 못해 공동3위(11언더와 205타)로 밀려 신인왕 레이스에서 선두로 나선데 만족해야 했다. 김미현(30·KTF)은 3언더와 69타를 치며 공동8위(9언더와 207타)에 올라 시즌 첫 '톱 10'에 입성했고, 조아람(22)은 2타를 줄이면서 공동10위(7언더와 209타)를 차지, 한국 선수 4명만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2언더와 70타를 친 박세리(30·CJ)는 후보 배경은(22·CJ)과 함께 공동14위(6언더와 210타)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지영이 25일 필즈오픈 최종 라운드 12번 그린에서 파팅을 성공한후 주먹을 쥐고 있다. /AP·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2006~2007 힐스테이트 V리그 한국전력 대 LIG의 경기에서 LIG의 이경수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LIG 거포 이경수 트리플 크라운

'토종 거포' 이경수(LIG)가 '트리플 크라운'을 작성하며 개인통산 1천500득점 돌파의 금자탑을 쌓았고 현대캐피탈은 파죽의 8연승으로 선두 진입 희망을 이어갔다. 이경수는 25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5라운드 한국전력과 경기에서 후위공격 5개와 서브 에이스, 블로킹 각 3개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24점을 뽑아 3-1(25-21, 25-17, 26-28, 25-17) 승리를 이끌었다. 이경수의 트리플 크라운은 올해 개인 처음(통산 3호)이자 전체로는 시즌 5호. 전날까지 개인통산 1천494득점이었던 이경수는 특히 1세트 22-18 리드에서 오픈 공격을 성공시키며 6점째를 올려 1천500득점 고지를 밟아 기쁨이 더욱 컸다. LIG도 3연패에서 탈출, 12승13패로 3위 대한항공(17승7패)을 승점 5점차로 추격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장신 군단' 현대캐피탈이 상무를 3-0으로 완파하고 8연승 고공비행을 계속했다. 1위 삼성화재와 똑같이 20승을 채운 현대캐피탈은 패 수가 1개 많아 2위에 머물렀다. /박진표기자 lucky@

▲트리플 크라운=1930년 경주마인 갤러트 폭스(Gallant Fox)가 미국의 3대 경마 레이스에서 우승한 뒤 1935년 그 말의 새끼가 다시 우승하면서 경마 용어로 정착됐다. 야구·축구·배구·골프 등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는 스포츠 용어다. 배구에서는 한 선수가 1경기에서 후위공격, 서브에이스, 블로킹을 3개 이상씩 달성하면 '트리플 크라운'이 된다.

광주 9위, 전남 7위

동계체전 폐막

지난 24일 폐막된 제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광주가 금 2, 은 2, 동 2개로 종합득점 187점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지만 보다 두 단계 올라선 전국 9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금 1, 은 5, 동 4개로 종합득점 222점으로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7위를 지켰다.

광주는 대회 마지막날인 24일 차상찬(조선대 1)이 테니스스케이팅장에서 열린 빙상 피겨 싱글B조 프리스케이팅 결승에서 67.35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 김인배(상무고 2)는 피겨 남중 싱글C조 프리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보태 광주의 막판 점수 획득에 기여했다. 이외에 빙상 쇼트트랙 남중부 2,000m에서 김희창(울림중 3)·명지훈(금남중 3)·오

병택(금남중 1)·홍성호(금남중 1)이 조를 이뤄 3분19초37로 결승점을 통과해 광주의 막판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전남은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와 여자일반부에서 각각 박준범(동신대 2)과 최미선(동신대 1)이 2득점씩을 획득해 전남의 2년 연속 7위 달성을 도왔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열전을 마친 이번대회에서 경기도가 금66, 은 79, 동 53개로 종합점수 1,129.5점을 획득해 강원과 서울을 따돌리고 6년연속 정상자리를 지켰다. 한편 강원대표 여자 바이애슬론의 기대주 조미란(16·대화중 3년)이 이번대회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용평=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